

한국인의 북한이미지*

최순미**·이우영***

본 연구는 70여 년이 넘도록 분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 머릿속에 북한이라는 대상이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한 측정도구는 박명규와 이상신이 개발한 ‘북한이미지 총화 척도’이며,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주관적 경제수준, 종교, 규칙적인 종교활동 여부, 정치적 성향 등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는 세대, 경제수준, 종교, 정치성향에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과 규칙적인 종교생활 유무에 따라서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인의 북한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미지 총화 척도의 모든 하위요소에서 ‘정치성향’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대 변수는 종속국이미지에만 세대가 높을수록 종속국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북한이미지의 중층성에 대한 이해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관계 관련 사안에 대한 초당적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한 객관적 북한이미지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국가이미지, 북한이미지, 남남갈등, 사회통합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5782).

**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연구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문제제기

한반도에 공존하고 있는 남북한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치제도 가운데 ‘다름’의 극단에 있는 두 가지 정치제도를 각각 취하고 있다. 남한은 자본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한 유일지배체제를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체제 차이는 분단의 역사로부터 기인한다. 분단과 한국전쟁, 냉전은 남북한 체제 차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남북한과 같이 각 사회의 차이가 ‘규정’되는 것은 갈등, 분쟁, 전쟁 등 역사적 시점에 근거하지만, 그 이후에는 각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본성으로 인해 그 차이가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정치제도, 규범, 문화, 가치 등을 공유하면서 각각의 사회가 존속한다. 남북한 역시 자신이 속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를 타자화 하고, 상대를 구분하는 근거로 ‘다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다름을 통해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과정은 각 사회 구성원이 수행하는 상징적 선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¹⁾ 즉, 각 사회를 유지하는 정체성의 힘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미지와 상상력이다. 예컨대 각 사회가 가진 신화적 이미지는 그 사회의 존속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선택된 상징 체계이며, 해당 사회 구성원들은 그 이미지에 자신을 소속시키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1) 유평근·진형준, 『이미지』(서울: (주)살림출판사, 2003), 268쪽.

그렇다면, 분단이라는 역사 속에서 남북한 가운데 여전히 스며들어 있는 정치적 이미지는 무엇일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 바라본 북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우리 사회 안에서도 소위 ‘남남갈등’을 빚어내는 원인으로서는 집단별 북한이미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한 북한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한 주민, 즉, 한국인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의 다양성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차이가 합리적인 체계와 논리적인 구조,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전제를 허물고, 사회구성원들의 무의식적 심리 구조에 의한 상상력과 이미지에 녹아 있는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각 분야에서 사회 갈등이 주요 어젠다로 다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집단별 의식 차이가 사회 갈등의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 시기적으로 남북관계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 등은 본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으로부터 파생된 문제의 원인을 마음에서부터 찾지 않고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들로부터만 찾으려고 했던 시도들에 대한 반성이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분단과 갈등의 문제를 ‘북한이미지’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2. 이론적 배경

1) 이미지 이론

인간은 언제나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대상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개인적인 경험 및 정보를 통해 형성된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근거로 평가한다.²⁾ 이미지의 정의는 어떤 대상에 대해 전달받은 모든 정보가 인간의 인식 속에서 정보처리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하나의 상(像)이다.³⁾ 즉, 이미지는 인지적 개념이며, 주관적 지식이다.

영미 이미지즘의 선구자 에즈라 파운드는 이미지를 “어떤 순간에 갑작스런 해방감을 주는 심리적 복합체”라고 말하며,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느낌으로 정의했다.⁴⁾ 이미지라는 말이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1992년 미국의 언론인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의 저서 *Public Opinion*을 통해서였는데, 리프만은 이미지를 우리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머리에 가지고 있는 영상이라고 규정하며 선입견과 편견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인간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광대한 세계를 마음, 정신으로 헤아리는 방법을 배우며, 손에 닿지 않는 세계에 대해 신뢰할 만한 그림을 머리에서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⁵⁾ 이에 따르면 이미지란 외적 형태를 단순히 모방하는 차원을 넘어 어떤

2) 이규완, “한국과 한반도 주변 4개국의 국가이미지와 상품이미지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84년과 2001년의 비교,” 『광고연구』, 제55호(2002), 111~134쪽.

3) 김재범, “한국광고대행사의 이미지에 대한 인지론적 연구: 다차원적 접근,” 『광고연구』, 5호(1989).

4) 민용태, 『이미지를 잡아야 세계를 잡는다』(서울: 국정홍보처, 2000), 10쪽.

5) Walter Lippmann, *Public Opinion*(N.Y.: The Macmillan Company, 1992), pp.3~32, 79~90.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심상이나 관념이라고 보고 있다. 볼딩(K. E. Boulding)도 이미지를 단순히 모방이 아닌 인간의 총체적인 인식 행위로 파악하며 이미지에 대해 “각 형태의 전반적인 인지적·감정적·평가적 구조 또는 그 행위 자체와 그것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내재적 견해”라고 말한다.⁶⁾

이를 국가에 적용하면, 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국가에 대해서 갖는 인식의 총체적인 심상이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 국가에 대한 행동이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⁷⁾ 또한 국가이미지는 정치, 경제, 역사 및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있다. 각 분야에서 형성된 국가이미지는 상호의존성을 갖고 영향을 주고받게 되며, 유기적 역동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한 분야에서 형성된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는 다른 분야에서도 국가이미지의 가속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부정적으로 형성된 국가이미지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기도 한다.⁸⁾ 더 나아가 대중이 갖는 국가이미지는 정책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독립변수이다.⁹⁾

6) K. E. Boulding, *The Image: Knowledge in life Society*(Michigan: The University of MI, 1961), pp.5-10.

7) 최순미,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가이미지”(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7쪽.

8) 박은희·황상재·조영신, 『미국 네트워크 뉴스에 나타난 한·일 국가이미지 연구』(서울: 한국방송개발원, 1996), 26쪽.

9) 김태현·남궁곤·양유석,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한국인들의 북한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3호(2003).

2) 한국인의 북한이미지와 그 영향요인

최근까지 매년 통일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는 국내 대표 기관으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실시한 2018년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2017년 41.9%에서 2018년 54.6%로 상승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 56.4%(+11.2%p), 30대 57.3%(+14.9%p), 40대 55.0%(+16.5%p), 50대 55.6%(+11.1%p)로 30대가 가장 높게, 4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한정권 신뢰도’ 질문에서 54.7%가 ‘북한정권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은 77.3%(+45.4%p)가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남한 주민의 위협 인식은 56.1%로 전년대비 14.5%가 하락하였으며,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남한 주민의 위협 인식은 78.6%로 전년대비 4.2% 하락, 남한 주민의 절반 이상(58.8%)이 2017년과 같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82.3%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선 방법으로 ‘남북 간 대화와 교류(46.2%)’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¹⁰⁾

한국인의 북한이미지 영향요인은, 세대(연령), 학력, 정치성향, 애국심, 남북 관련 이슈, 통일효용성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태현, 남궁곤, 양유석의 연구는, 국가이미지가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인의 북한이미지가 그들이 갖는 핵심가치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고, 대북정책에 대한 일반

1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2018 통일의식조사: 대 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2018년 10월 2일.

정세와 정책 지지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인의 대북 이미지는 개인이 속한 세대요인과 학력요인과 같은 핵심가치와는 상관성이 높은 반면에 그가 속한 지역 요인, 소득 요인, 그리고 이념요인과는 명백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는 개혁주의, 평화주의, 외교 자긍심을 둘러싼 일반 정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지만 애국심을 측정한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는 구체적인 남북교류와 화해 정책 태도에 결정적인 독립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민족주의자와 현실주의자 집단 간의 차이가 가장 현저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개인차를 감안할 때 일견 무질서 해 보이는 일반 대중의 북한이미지와 대북정책 지지도는 그 대응방식에도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한국인들이 갖는 외교정책 신념도 일관성이 있으며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이상신의 연구는 허먼(Herrmann)의 국가이미지 이론(national image theory)에 기초하여, 한국인들이 가진 북한의 이미지는 어떠한며, 그 이미지의 차이가 정말로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정도의 것인지를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이념과 정당일체감, 지역주의는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통일효용성은 북한이미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실용주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우파 권위주의 성격(right-wing authoritarian personality)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인다는 것이 발견되었다.¹²⁾

11) 김태현·남궁근·양유석,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한국인들의 북한이미지를 중심으로,” 151쪽.

윤광일의 연구에서는 국가정체성의 주요 구성요소인 애국심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대북 및 통일 태도에 대한 함의를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중 북한이미지에 관한 분석은 애국심을 독립변수로, 사회경제변수, 정당지지, 정치이데올로기를 통제변수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애국심이 높아질수록 북한을 경계 또는 적대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원 또는 협력 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적 애국심은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 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을 높이고 경계 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하여 내셔널리즘과 맹목적 애국심은 북한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한 독립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통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¹³⁾

3. 연구방법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함께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바를 연구문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3호(2014), 187쪽.

13) 윤광일, “국가정체성과 대북 태도: 애국심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1권 3호(2018).

<연구 문제>

- 1)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 2)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는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한국인의 북한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에 훈련된 연구원들과 조사원들이 조사대상자를 만나 연구의 취지와 설문문의 내용, 조사자의 권리, 비밀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2월~4월까지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전국의 성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¹⁴⁾ 본 연구에서 진행된 조사는 경남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at Kyungnam University)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에는 한국인의 북한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주관적 경제수준, 종교, 종교활동, 정치적 성향 등을 선정하였다.

14)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 2017년 북핵위기로 인해 2018년 초 북미 간 핵 긴장 국면을 지나,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긍정적이었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사시기의 특성, 국가이미지가 갖는 가변성 등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를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로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동일한 측정도구로 다양한 시기에 조사를 반복하면서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를 확인해 나아갈 과제를 안고 있다.

<표 1> 북한이미지 총화 척도

적국 이미지 척도
1. 지금까지 소행으로 봐서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다.
2. 북한은 이기적이며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는 나라다.
3. 남한이 평화적으로 접근하면 북한은 그것을 이용해서 남한을 등쳐먹으려 할 것이다.
4. 남한이 틈을 보이면 북한은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5. 북한은 남한에 적대적이며 항상 악의적으로 대하고 있다.
야만국 이미지 척도
1. 북한은 다른 나라(혹은 남한)에 피해를 주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꼭 하고야 만다.
2. 북한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른 나라(혹은 남한)로부터 빼앗는다.
3. 북한은 거칠고, 무례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4. 북한 지도부는 무자비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
5. 북한 지도층은 법을 멋대로 무시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6. 북한 사회는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라 매우 혼란스럽다.
7. 북한의 국력이 더 강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위험해질 것이다.
종속국 이미지 척도
1. 북한 사람들은 순진하고 기본적으로 착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남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2. 북한 사람들도 좀 더 잘살고 싶어 하지만 무능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3. 북한에도 온건하고 책임감 있는 엘리트들이 있어서 강경파와 대립하고 있다.
4. 북한의 온건파들은 남한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
5.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부러워한다.
6. 북한의 장래를 걱정하는 북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들과는 달리 남한과 협력하고 싶어 한다.
동반국 이미지 척도
1.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원하고 있다.
2. 북한은 자신의 이익만 챙길 뿐 남한과의 협력에는 무관심하다(역코딩 항목)
3. 북한은 남한과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한다.
4. 북한은 남한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다.
5. 북한은 합리적인 대화 가능한 상대이며 조건이 맞는 상대와는 타협도 할 수 있다.
6. 북한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남한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독재국 이미지 척도

1. 김정일 정권은 북한 주민을 매우 억압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2. 국제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정권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3. 햇볕정책이 아니었다면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했을 것이다.
4.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의 실체를 알면 쉽게 내부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5.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인다고 해도 결코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6. 북한 주민들은 공포 때문에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척 할뿐, 실제로는 불만에 차있다.
7. 북한이 지금은 좀 사정이 어렵지만, 결코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는다.

동포 이미지 척도

1. 북한 사람들도 우리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2.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외교적 수단일 뿐, 정말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3.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라기보다는 체제안정과 개방이다.
4. 북한 지도부는 어리석거나 비이성적이지 않다.
5. 북한은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민족 통일을 원한다.
6. 북한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 쉽게 내부적으로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활용한 측정도구는 박명규와 이상신이 개발한 ‘북한이미지 총화 척도’이다. 박명규와 이상신은 한국인의 대북태도나 정책지향, 그로 인한 남남갈등이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집단적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미지의 영향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남남갈등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허먼의 이미지 이론(image theory)은 앞서 언급한 볼딩의 논의를 계승하여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분류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 박명규와 이상신의 연구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한국 성인남녀 823명에 대한 일대일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북한이미지들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표 2> 북한이미지와 감정 및 정책 선호의 상관성

양립 가능성	구조적 관계 인식			이미지	감정	정책 선호
	상대적 국력	문화적 지위	민족 동질감			
갈등	북=남	북=남	no	적대국	분노, 적대감	공격, 봉쇄
갈등/협력	북<남	북<남	no	종속국	멸시, 경멸	지원, 착취, 이용
갈등	북>남	북<남	no	야만국	공포, 불안	자기방어, 저항
협력	북=남	북=남	yes	형제국	신뢰, 존경	공조, 협조
협력/갈등	북<남	북<남	yes	독재국	경멸, 이중성, 도움	흡수, 체제전환
협력	북<남	북=남	yes	동포	동정, 이해	보호, 지원, 양보

자료: 박명규·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평화』, 제3권 1호(2011), 152쪽.

그 결과 <표 1>와 같이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를 적국, 야만국, 종속국¹⁵⁾, 동반국, 독재국, 동포 이미지의 여섯 가지 이미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북한이미지 총화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 이미지 개념들은 북한에 대한 감정과 정책적 선호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표 2>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조사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해당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841로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이 있는 척도임이 입증되었다.

15) 종속국은 국력과 문화적 지위가 모두 자국보다 열등한 국가에 대해 형성되는 이미지로, 독자적인 생존이나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국이미지는 적국이나 야만국 이미지와 같이 강한 부정적 이미지는 아니며, 종속국을 대하는 태도에는 멸시와 동정의 감정이 대표적으로 작동한다. 박명규·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통일과평화』, 제3집 1호(2011).

<표 3> 측정도구의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북한이미지 총화 척도	37	.841

3) 분석방법

SPSS 24.0을 사용하여 한국인 응답자 1,00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북한이미지 실태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서베이를 실시함에 있어 성별, 연령은 각각 동일한 쿼터를 부여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성별은 남성 50%, 여성 50%의 동일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의 경우에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5개 그룹이 모두 20%씩 동일한 비율을 구성하고 있다.

<표 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수	%
전 체		1000	100.0
성별	남	500	50.0
	여	500	50.0
세대	20대	200	20.0
	30대	200	20.0
	40대	200	20.0
	50대	200	20.0
	60대 이상	200	20.0
주관적 경제수준	아주 어렵다	47	4.7
	어려운 편이다	245	24.5
	보통이다	622	62.2
	잘사는 편이다	79	7.9
	아주 잘산다	7	.7
종교	기독교(개신교)	225	22.5
	천주교	109	10.9
	불교	151	15.1
	무교	515	51.5
규칙적 종교활동	예	244	50.3
	아니오	241	49.7
정치성향	진보	127	12.7
	중도	769	76.9
	보수	104	10.4

주관적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아주 어렵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7%, ‘어려운 편이다’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24.5%, ‘보통이다’는 62.2%로 가장 많았으며, ‘잘사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9%,

‘아주 잘산다’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0.7%로 가장 적었다.

종교의 경우, ‘무교’가 51.5%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22.5%, ‘불교’ 15.1%, ‘천주교’ 10.9%의 순서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규칙적으로 종교활동을 한다’는 응답자가 50.3%, ‘규칙적으로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9.7%였다. 정치성향을 묻는 문항에서는 ‘중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76.9%로 가장 많았고, ‘진보’가 12.7%, ‘보수’가 10.5%로 나타났다.

2) 한국인의 북한이미지

한국인의 북한이미지를 살펴보면 적국이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2.4%, ‘그렇지 않다’ 31.9%, ‘그렇다’ 40.9%, ‘매우 그렇다’ 15.5%로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과반수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만국이미지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9%, ‘그렇지 않다’ 25.9%, ‘그렇다’ 54.5%, ‘매우 그렇다’ 17.7%로 나타나, 북한을 야만국 이미지로 보는 응답자수가 70% 이상이었다. 종속국이미지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0.8%, ‘그렇지 않다’ 15.8%, ‘그렇다’ 78.6%, ‘매우 그렇다’ 4.8%로 북한이미지의 하위요소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북한을 종속국이미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국이미지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1.1%, ‘그렇지 않다’ 37.1%, ‘그렇다’ 58.5%, ‘매우 그렇다’ 3.3%로 나타났으며, 독재국이미지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0.3%, ‘그렇지 않다’ 18.9%, ‘그렇다’ 68.8%, ‘매우 그렇다’ 12.0%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독재국이미지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약 80%로 나타났다. 동포이미지의 측정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3.6%, ‘그렇지 않다’ 30.8%, ‘그렇다’ 61.9%, ‘매우 그렇다’ 3.7%로 나타났다.

<표 5> 북한이미지 하위요소별 빈도

(단위: 명, %)

북한이미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합계
적국이미지	24(2.4)	319(31.9)	502(50.2)	155(15.5)	2.79	1,000
야만국이미지	19(1.9)	259(25.9)	545(54.5)	177(17.7)	2.87	1,000
종속국이미지	8(0.8)	158(15.8)	786(78.6)	48(4.8)	2.74	1,000
동반국이미지	11(1.1)	371(37.1)	585(58.5)	33(3.3)	2.52	1,000
독재국이미지	3(0.3)	189(18.9)	688(68.8)	120(12.0)	2.90	1,000
동포이미지	36(3.6)	308(30.8)	619(61.9)	37(3.7)	2.56	1,000

북한이미지를 구성하는 6가지 하위요소 중 적국이미지, 야만국이미지, 종속국이미지, 독재국이미지는 비교적 부정적인 요소이며, 동반국이미지, 동포이미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북한이미지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모든 하위요소에서 응답의 평균이 보통보다 높게, 즉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으면 동반국이미지로 보는 응답자 비율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똑같이 과반 이상의 높은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서로 모순되는 북한 이미지들이 공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3) 집단별 북한이미지

전체 북한이미지 분석에 이어 집단별 북한이미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통해 집단별 평균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 6> 성별에 따른 북한이미지

종속변수	평균		표준 편차		t	p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적국이미지	2.81	2.78	.690	.629	.719	.472
야만국이미지	2.56	2.55	.557	.484	.414	.679
종속국이미지	2.75	2.72	.451	.373	1.248	.212
동반국이미지	2.52	2.53	.508	.419	-.407	.684
독재국이미지	2.89	2.90	.539	.457	-.353	.724
동포이미지	2.56	2.55	.557	.484	.414	.679

성별에 따른 북한이미지는 6개의 하위문항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세대별로는 적국이미지와 독재국이미지에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국이미지에 있어서는 30대, 40대에 비해 60대에서 적국이미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독재국이미지에서는 40대에 비해 20대, 50대, 60대에서 독재국이미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별 북한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적국이미지, 야만국이미지, 독재국이미지, 동포이미지에서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종속국이미지, 동반국이미지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검정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어려운 편’에 속하는 집단이 ‘보통’인 집단보다 더 북한을 적국과 독재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북한을 더 야만국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아주 잘산다’에 해당하는 집단이 ‘아주 어렵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북한을 더 동포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7> 세대에 따른 북한이미지

종속변수	세대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정
적국이미지	20대	2,81	.592	5,880*	30, 40대 <60대 (Scheffe)
	30대	2,69	.631		
	40대	2,67	.723		
	50대	2,85	.669		
	60대 이상	2,95	.645		
야만국이미지	20대	2,54	.542	1,602	
	30대	2,59	.518		
	40대	2,62	.509		
	50대	2,54	.519		
	60대 이상	2,49	.517		
중속국이미지	20대	2,68	.465	2,442	
	30대	2,70	.407		
	40대	2,74	.445		
	50대	2,77	.348		
	60대 이상	2,79	.388		
동반국이미지	20대	2,53	.468	1,821	
	30대	2,57	.462		
	40대	2,56	.460		
	50대	2,50	.469		
	60대 이상	2,46	.468		
독재국이미지	20대	2,95	.479	5,542*	40대< 20, 50, 60대 (Scheffe)
	30대	2,88	.488		
	40대	2,76	.519		
	50대	2,93	.475		
	60대 이상	2,97	.512		
동포이미지	20대	2,54	.542	1,602	
	30대	2,59	.518		
	40대	2,62	.509		
	50대	2,54	.519		
	60대 이상	2,49	.517		

* p<.05, ** p<.01, *** p<.001.

<표 8> 경제수준에 따른 북한이미지

종속변수	경제수준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정
적국이미지	아주 어려움	2.97	.798	5.469***	보통 (어려운 편 (Dunnett T3)
	어려운 편	2.90	.641		
	보통	2.72	.640		
	잘사는 편	2.88	.713		
	아주 잘삼	3.26	.629		
야만국이미지	아주 어려움	2.36	.609	2.459*	어려운 편 (보통 (Dunnett T3)
	어려운 편	2.52	.516		
	보통	2.58	.508		
	잘사는 편	2.57	.559		
	아주 잘삼	2.74	.607		
중속국이미지	아주 어려움	2.68	.575	1.230	
	어려운 편	2.73	.397		
	보통	2.73	.390		
	잘사는 편	2.82	.504		
	아주 잘삼	2.83	.638		
동반국이미지	아주 어려움	2.38	.588	1.727	
	어려운 편	2.50	.490		
	보통	2.54	.437		
	잘사는 편	2.51	.501		
	아주 잘삼	2.60	.700		
독재국이미지	아주 어려움	2.95	.633	3.959***	보통 (어려운 편 (Dunnett T3)
	어려운 편	2.99	.473		
	보통	2.85	.483		
	잘사는 편	2.96	.573		
	아주 잘삼	2.96	.558		
동포 이미지	아주 어려움	2.36	.609	2.459*	아주 어려움 (아주 잘삼 (Dunnett T3)
	어려운 편	2.52	.516		
	보통	2.58	.508		
	잘사는 편	2.57	.559		
	아주 잘삼	2.74	.607		

* p<.05, **p<.01, ***p<.001

< 표 9 > 종교에 따른 북한이미지

종속변수	종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정
적국이미지	기독교(개신교)	2.82	.654	.707	
	천주교	2.81	.749		
	불교	2.83	.689		
	무교	2.76	.634		
야만국이미지	기독교(개신교)	2.92	.624	1.349	
	천주교	2.87	.704		
	불교	2.92	.649		
	무교	2.83	.621		
중속국이미지	기독교(개신교)	2.76	.408	1.477	
	천주교	2.77	.424		
	불교	2.77	.413		
	무교	2.71	.414		
동반국이미지	기독교(개신교)	2.49	.488	.641	
	천주교	2.56	.535		
	불교	2.51	.454		
	무교	2.53	.444		
독재국이미지	기독교(개신교)	2.96	.489	3.826**	무교 (기독교 (Tukey HSD)
	천주교	2.92	.544		
	불교	2.96	.518		
	무교	2.85	.484		
동포이미지	기독교(개신교)	2.51	.509	.932	
	천주교	2.61	.582		
	불교	2.56	.475		
	무교	2.56	.527		

*p<.05, **p<.01, ***p<.001.

<표 10> 규칙적인 종교 활동 유무에 따른 북한이미지

종속변수	평균		표준 편차		t	p
	규칙적	불규칙적	규칙적	불규칙적		
적국이미지	2.80	2.84	.700	.672	-.627	.531
야만국이미지	2.56	2.54	.543	.489	.354	.724
중속국이미지	2.78	2.75	.434	.390	.757	.450
동반국이미지	2.54	2.49	.515	.459	1.175	.241
독재국이미지	2.95	2.95	.528	.493	.038	.970
동포이미지	2.56	2.54	.543	.489	.354	.724

종교에 따라서는 독재국이미지에서만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정을 통해 본 결과, 기독교가 무교보다 북한을 독재국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규칙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중속국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소(적국이미지, 야만국이미지, 동반국이미지, 독재국이미지, 동포이미지) 모두에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집단별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났다. 특히 부정적 이미지(적국이미지, 야만국이미지, 독재국이미지)에서는 ‘진보적<중도적<보수적’의 순서로 나타났고, 긍정적 이미지(동반국이미지, 동포이미지)에서는 반대로 ‘보수적<중도적<진보적’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1> 정치성향에 따른 북한이미지

종속변수	정치성향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정
적국이미지	진보적	2.45	.659	73.690***	진보적<중도적<보수적 (Scheffe)
	중도적	2.77	.611		
	보수적	3.42	.600		
야만국이미지	진보적	2.57	.651	47.224***	진보적<중도적<보수적 (Scheffe)
	중도적	2.85	.596		
	보수적	3.34	.647		
종속국이미지	진보적	2.75	.441	.325	
	중도적	2.74	.399		
	보수적	2.71	.486		
동반국이미지	진보적	2.69	.439	31.818***	보수적<중도적<진보적 (Dunnett T3)
	중도적	2.54	.437		
	보수적	2.22	.566		
독재국이미지	진보적	2.78	.490	22.227***	진보적<중도적<보수적 (Dunnett T3)
	중도적	2.88	.480		
	보수적	3.18	.549		
동포이미지	진보적	2.74	.515	32.885***	보수적<중도적<진보적 (Dunnett T3)
	중도적	2.57	.487		
	보수적	2.21	.621		

* p<.05, **p<.01, ***p<.001.

4) 북한이미지 영향요인

북한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북한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하위요인이 각각

어떤 요인들로부터 영향으로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6개 하위요인 각각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회귀식은 모두 잔차들 간 상관관계(Durbin-Watson값이 2에 수렴)가 없으며, 회귀모형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적국이미지 영향요인

먼저 적국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성향’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보수적일수록 북한을 적국이미지로 보는 경향이 높고, 진보적일수록 적국이미지가 낮게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설명력은 16.7%이며, 공차한계가 모두 0.1 이상, VIF는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 적국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한계
적국 이미지	상수	.139		14.630	.000	
	성별	.038	.019	.642	.521	.998
	세대	.014	.019	.628	.530	.953
	경제수준	.028	-.017	-.586	.558	.984
	종교	.021	-.033	-.852	.394	.545
	종교활동	.060	-.033	-.838	.402	.545
	정치성향	.016	.401	13.529	.000***	.956
R= .409 R ² = .167 Adj. R ² = .162 F= 33.190						

* p<.05, **p<.01, ***p<.001.

(2) 야만국이미지 영향요인

야만국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정치적 성향’으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보수적일수록 북한을 야만국이미지로 보는 경향이 높고, 진보적일수록 야만국이미지가 낮게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설명력은 12.8%이며, 공차한계가 모두 0.1 이상, VIF는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야만국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한계
야만국 이미지	상수	.137		16.650	.000	
	성별	.038	-.004	-.129	.897	.998
	세대	.014	.023	.762	.447	.953
	경제수준	.027	-.014	-.473	.637	.984
	종교	.021	-.057	-1.408	.160	.545
	종교활동	.059	-.044	-1.086	.278	.545
	정치성향	.016	.347	11.457	.000***	.956
R= .358 R ² = .128 Adj. R ² = .123 F= 24.314						

* p<.05, **p<.01, ***p<.001.

(3) 종속국이미지 영향요인

종속국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대’로 나타났다. 높은 연령대일수록 북한을 종속국이미지로 보는 경향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종속국이미지가 낮게 나타났다. 다만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0.1%로 다소 낮으며,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 VIF는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4> 종속국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한계
종속국 이미지	상수	.095		27.198	.000	
	성별	.026	.041	1.313	.190	.998
	세대	.009	.100	3.096	.002***	.953
	경제수준	.019	.048	1.524	.128	.984
	종교	.014	-.015	-.359	.720	.545
	종교활동	.041	.037	.858	.391	.545
	정치성향	.011	-.034	-1.043	.297	.956
	R= .132 R ² = .017 Adj. R ² = .011 F= 2.917					

* p<.05, ** p<.01, *** p<.001.

(4) 동반국이미지 영향요인

동반국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성향’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진보적일수록 북한을 동반국이미지로 보는 경향이 높고, 보수적일수록 야만국이미지가 낮게 나타났다.

<표 15> 동반국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한계
동반국 이미지	상수	.103		27.249	.000	
	성별	.028	-.008	-.276	.783	.998
	세대	.010	-.014	-.460	.646	.953
	경제수준	.021	.028	.921	.357	.984
	종교	.016	.054	1.315	.189	.545
	종교활동	.045	.070	1.696	.090	.545
	정치성향	.012	-.270	-8.662	.000***	.956
	R= .282 R ² = .080 Adj. R ² = .074 F= 14.344					

* p<.05, ** p<.01, *** p<.001.

결과에 대한 설명력은 0.8%로 다소 낮으며, 공차한계가 모두 0.1 이상, VIF는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독재국이미지 영향요인

독재국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정치적 성향’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보수적일수록 북한을 독재국이미지로 보는 경향이 높고, 진보적일수록 독재국이미지가 낮게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설명력은 0.65%로 다소 낮으며,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 VIF는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6> 독재국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한계
독재국 이미지	상수	.111		24.678	.000	
	성별	.031	-.013	-.428	.669	.998
	세대	.011	-.025	-.798	.425	.953
	경제수준	.022	-.039	-1.268	.205	.984
	종교	.017	-.079	-1.890	.059	.545
	종교활동	.048	.002	.049	.961	.545
	정치성향	.013	.234	7.466	.000***	.956
R= .255 R ² = .065 Adj. R ² = .059 F= 11.527						

* p<.05, ** p<.01, *** p<.001.

(6) 동포이미지 영향요인

동포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역시 ‘정치적 성향’이었으며, 뚜렷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진보적일수록 북한을 동포 이미지로 보는 경향이 높고, 보수적일수록 동포이미지가 낮게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설명력은 0.9%이며,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 VIF는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 동포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한계
동포 이미지	상수	.115		24.664	.000	
	성별	.032	.017	.555	.579	.998
	세대	.011	.019	.604	.546	.953
	경제수준	.023	.052	1.691	.091	.984
	종교	.017	.037	.909	.364	.545
	종교활동	.050	.035	.863	.388	.545
	정치성향	.013	-.291	-9.392	.000***	.956
	R= .300 R ² = .090 Adj. R ² = .085 F= 16.418					

* p<.05, **p<.01, *** p<.001.

5. 한국인의 북한이미지 특성과 함의

한국인의 북한이미지 실태와 집단별 북한이미지, 북한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첫째, 북한이미지를 구성하는 6개의 하위 이미지가 서로 상충되는 의미를 담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도분석 결과, 모든 하위 이미지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 내에 여러 가지 북한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적용된 ‘북한이미지 총화 척도’를 고안했던 박명규와 이상신 역시 분단과 전쟁, 탈냉전과 대북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북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들이 혼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⁶⁾ 즉 한국 사회 내에서 북한은 적대국이면서 동시에 민족공동체의 일부이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별개 국가와도 같은 지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이런 상이한 성격과 결부된 다중적 이미지는 현실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정책지향으로 나타나 남남갈등 및 정치적 균열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집단별 북한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세대, 경제수준, 종교, 정치성향에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세대와 북한의 국가이미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미성이 증명된 바 있다.¹⁷⁾ 세대 간 북한이미지의 차이는 해방, 분단, 전쟁, 남북관계 변천사 등 남북관계의 역사가 지나오는 동안 인간의 생애사도 함께 지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역사적 과동의 맥락 속에서 특정 시기를 경험한 세대와 그 이후 세대, 부정적 경험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북한이미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60대 이상의 집단에서 적국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전쟁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의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정치적 성향은 독립변수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집단별 차이를 보여 일부 선행연구

16) 박명규·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132쪽.

17) 한현, “북한의 국가이미지가 개성공업지구 제품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등.

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한국인의 북한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대와 정치성향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성향은 6개의 하위 이미지 중 종속국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적국, 야만국, 독재국이미지)는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긍정적 이미지(동반국, 동포이미지)는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론에서 언급한 ‘상대와 구분하기 위한 이미지 선택’ 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남한과 북한의 구분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대적인 정치 성향 집단과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북한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이 북한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의 방증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 머릿속의 북한이미지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한국인의 북한이미지에 나타나는 중층성은 우리의 삶과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개인이 특정 국가에 대해서로 상충되는 국가이미지를 동시에 떠올린다는 것은 집단 간 갈등과 그 성격이 다른 문제로, 한 인간 내면의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분단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북한에 대해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는 양가감정의 성격을 띄는 북한이미지를 갖는 것 자체가 부정적 심리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미지의 중층성에 대한 이해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치유하는 ‘문제인식’의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남북관계 관련 사안에 대한 정치성향별 가치관과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치성향은 한국인의 북한이미지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즉, 정치성향의 차이는 북한이미지의 선택으로 나타나고, 정치성향별 집단 차이는 남북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슈들을 정쟁화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그러나 집단별 북한이미지의 심층에는 정치적 성향이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 개인의 마음속에도 상충된 북한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과 북한사회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¹⁸⁾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과 대별되는 북한에 대해 선택하는 상징적 이미지가 북한의 국가이미지를 결정한다.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북한에 대한 중층적 이미지를 고려할 때, 각 사회구성원들은 자신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북한이미지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선택지가 실제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 왜곡되지 않도록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노출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한국인의 집단별 북한이미지 차이는 남남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북한이미지를 통해 남남갈등을 설명할 때에는 북한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집단들 간 남남갈등

18) 이미지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미지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이다. 특히 국가이미지는, 국가의 정체성 구성요소, 전달 매개체, 수용자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남북한 상호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보다 긍정적 상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한국인들이 중층적인 북한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다만 집단정체성을 위해 확실하게 구분된 북한이미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집단적’ 선택은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적정수준의 갈등은 사회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지만 집단적 갈등이 심화되면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사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¹⁹⁾ 이것이 헌법상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이미지를 객관적인 방향으로 견인해야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과 남북한 통합을 위한 남북 상호 이미지 구축 전략이 요구된다.

■ 접수: 6월 19일 / 수정: 8월 12일 / 채택: 8월 12일

19) 부만근, 『사회통합론』(제주: 온누리디앤피, 2016), 141쪽.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민용태, 『이미지를 잡아야 세계를 잡는다』(서울: 국정홍보처, 2000).

부만근, 『사회통합론』(제주: 온누리디앤피, 2016).

박은희·황상재·조영신, 『미국 네트워크 뉴스에 나타난 한·일 국가이미지 연구』(서울: 한국방송개발원, 1996).

유평근·진형준, 『이미지』(서울: 살림출판사, 2003).

2) 논문

김재범, “한국광고대행사의 이미지에 대한 인지론적 연구: 다차원적 접근,” 『광고연구』, 5호(1989), 161~182쪽.

김태현·남궁근·양유석,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한국인들의 북한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3호(2003), 151~174쪽.

박명규·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통일과평화』, 제3집 1호(2011), 129~173쪽.

윤광일, “국가정체성과 대북 태도: 애국심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1권 3호(2018), 1~31쪽.

이규완, “한국과 한반도 주변 4개국의 국가이미지와 상품이미지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84년과 2001년의 비교,” 『광고연구』, 제55호(2002), 111~134쪽.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3호(2014), 187~215쪽.

최순미,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가이미지”(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한현, “북한의 국가이미지가 개성공업지구 제품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 기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2018 통일의식조사: 내 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2018년 10월 2일.

2. 국외 자료

1) 단행본

Boulding, Kenneth Ewart, *The Image: Knowledge in life Society*(Michigan: The University of MI, 1961).

Lippmann, Walter, *Public Opinion*(N.Y.: The Macmillan Company, 1992).

South Korean's perception toward the national image of North Korea

Choi, Soon Mi(Ajou University)
Lee, Woo Young(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analyzed the North Korean image of South Koreans. It conducted a survey of 1,000 people to analyze the image of North Koreans.

Dependent variable is 'North Korean image scale' that was developed by Park Myung-kyu and Lee Sang-shin. Independent variables are gender, age, subjective economic level, religion, regular religious activity and political orientation.

This study found that South Koreans' images of North Korea differ in generation, economic level, religious and political orientatio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sex and regular religious life. According to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North Korea's image of South Koreans, "political orientation" affects all subcomponents of the North's image. Generation variables affect the image of a subordinate country. The higher the generation, the stronger the perception of subordinate

country image.

The implications of South Koreans' image of Nor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on a personal level, the process of healing the ambivalence of the Korean people's North Korea image is necessary. Second, a bipartisan strategy is needed on issues related to inter-Korean relations at the national level. Third, efforts are needed to build an objective image of North Korea for the integr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Keywords: North Korea image, national image, internal conflict, social integration